

가을 문턱, 학창시절 《알개전》의 사랑을 해볼까,

학문사랑 《학문의 즐거움》 빠질까?



사랑에 빠진 아이들은 티가 난다. 1학년 준수도 예외는 아니다. 준수라는 이름 그대로 성격도, 외모도, 수업태도도 '준수' 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인가 4분단 제일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이상타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눈빛도, 대답하는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쯤 되면 백발백중인 셈이다. "누구는 좋겠네." "친구가 예쁘다지?" 수업중에 아이들은 여러 가지 단서(?)들을 흘려댔고, 조합해 보니 준수는 이제 막 여자친구를 사귄 듯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준수는 만사에 둔감해졌다. 결국엔 내가 가까이 온지도 모르고 무언가 열심히 쓰다 뺏기고 말았다. 연애편지는 아니었고, 담임선생님께 쓰는 반성문이었다. 학생의 개인사이기에 조심스럽지만, 꽤 낭만적이라 조금 누설하자면 "비 오는 날 우산 없는 여자친구에게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 청소를 빼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때 선생으로서 "멋지다! 잘해봐!" 어개 두어 번 치며 파이팅을 외치다가는 아이를 완전히 버려놓기(?) 십상이다. 들어가지도 않을 걸 알면서 "금쪽 같은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며 공부 소홀히 마라. 공부, 공부를 누누이 강조했다. "예예" 알겠다고는 하는데, 듣는 품이 소 귀에 경 읽기, 꼭 그 격이다. 하여간, 여전히 공부에 짓 눌리면서도 아이들은 목하 열애중이다.

50년이 한결같은 《알개전》속 학창시절의 풋사랑

"요즘 아이들..."이란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21세기에도 사랑에 관한 수업풍경은 여전히 같다. 학기 초가 되면, 아이들은 날이 맑다고, 또는 흐리다고, 아무 때나 그 이유대로 '첫사랑' 이야기를 즐긴다. 기분에 따라 해주기도 하는데, 할 때마다 신기한 건 아이들의 집중도다. 눈들은 또 기름칠한 듯 얼마나 반짝이는지! 맛있는 내용 그대로 하기 미안해, 극적으로 각색 좀 해보면 또 "오!" 환호성이 터진다.

반추해 보면, 고교시절의 나 또한 그랬으니 학창시절의 감수성은 별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일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50년 전 나온 《알개전》을 권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니 말이다. 만화책을 찾으러 도서관에 왔던 아이들도, 《알개전》 1페이지만 읽으면 서둘러 대출부터 하려든다. 우선, 그 재미 면에서는 보장할 만한 작품이다.

"나두수란 것은 알개의 본명이다. KK중학교 1천여 명 학생 중에서 두수를 모르는 학생이라곤 거의 없을 지경으로 그는 전교내에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이다... (낙제를 두 번하여) 재적 학년은 아직도 1학년인 두수

조주희 | 서울 대광고등학교 교사

가, 어찌하여 일약 교내의 명사가 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차츰 밝혀질 일이거니와 적어도 우등생이라든가 혹은 운동선수라든가, 또는 음악, 미술, 문학 등에 뛰어난 재주가 있는 때문은 아니다. 하라는 일 쳐놓고 하여 본 일이 없고, 하지 말라는 일 쳐놓고 안 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이를테면 길로 가려면 뒤편으로 그의 성격이, 때때로 엉뚱한 장난을 하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맹랑한 사건을 가끔 일으키게 하는 때문이다."(《알개전》 처음 부분)

제목 그대로 '알개' 다운 활약이 눈부신 작품이다. 누나 화장품을 백묵가루로 바꾸고, 생물실에 있는 해골을 들이밀어 애꿎은 동네 할아버지를 놀래키고, 교장선생님께 훈계를 받던 중 등글 걸상으로 자신을 대체해 놓고 내달린다.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중증 문제아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밋지가 않다. 오히려, 유쾌하고 시원하고 짜릿하기까지 하다. 일테면 "불이야!" 해놓고, "어디 무슨 불이야?"라는 질문에 "반딧불이야!" 외치는 모습에서는 통쾌한 웃음보가 터져버린다. 하지만 웃음만 있는 건 아니다. 예상대로 알개도 사랑은 한다. 상대는, 동갑내기 인숙. 알개가 떠들거리며 의남매를 맺자는데, "1학년에서 낙제를 한 주제에... 흥! 오빠가 다 뭐 말라 죽은 오빠야!"라고 인숙은 몰아친다. 덕분에, 천하의 알개가 운다. "우등생이 되겠습

## 이 글을 쓴 조주희 선생님은

현재 대광고등학교 국어교사이며  
문학반을 담당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고, 대학교와  
대학원 시절 CBS 다큐멘터리 작가,  
리포터, <여성동아> 자유기고가로  
활동한 바 있다.



《알개전》 조훈파 지음 | 아이필드 | 206쪽 | 값 6,500원

《학문의 즐거움》 히로나카 헤이스케 지음 | 방송양 옮김 | 김영사 | 246쪽 | 값 6,900원

니다! 인격자가 되겠습니다!” 포효(咆哮)한다.  
좀 전까지 깔깔 웃다가도 이 부분에선 읽는  
사람도 꽤 진지하게 된다. 하지만 알개는 알  
개다. 또 웃고 사고를 치고, 그렇게 웃다가 진  
지해지다가 보면 《알개전》 한 권이 후딱이다.  
마치 웃다가 울다가 사랑하다가 공부하다가  
후딱 지나가는 학창시절처럼.

점순한 수학박사의

《학문의 즐거움》을 통한 진술한 학문 사랑

30도가 훌쩍 넘던 8월 초, 학교 보충수업이  
시작됐다. 창문을 열어젖히고, 선풍기를 연  
신 틀어댔다. 하지만 아이들 말대로 '육수' 가  
온몸을 흐르는 나날이었다. 재치 있는 아이  
들은 반바지를 가져와 갈아입었고, 몇몇 아  
이들은 염치 불구하고 메리야스를 내보인 채  
교복남방으로 부채질을 해댔다. 더위는 이길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아이들은 생각  
보다 꽤 열심이다. 성격이 우수한 1학년 심화  
반의 경우엔, 그 불가마 속에서도 쉬는 시간  
마다 수학문제를 푸는 아이도 꽤 있었다. 기  
특하기도 하고, 도움도 주고 싶기도 해서 수  
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의 《학문의 즐거움》  
을 들고 들어갔다.

“수학자 책인데…” 말이 떨어지기 무  
섭게 재목이가 손을 들었다. 까만 빨테가 유

난히 돋보이는 성실과 모범, 그 자체인 재목  
이. 책을 내주자, 수학이 제일 좋다고, 내일까  
지 다 읽어 온다고, 신난다고 책을 빌려갔다.  
그런데, 다음날, 재목이는 오지 않았다. “잘  
걸요?” 친구 도협이는 알 만하다는 듯이 심드  
렁하게 넘어간다. 여태껏 더위 속에서 성실  
하게 공부한 모습만 본 터라 조금 실망도 되  
었다. 어디 보자 했는데, 다음 날 재목이의 변  
명은 단순했다. “일어났는데 비가 오잖아요.  
우산이 없는 거예요. 우산 사러 가야 하는데,  
귀찮아서 그냥 잤어요.” 이런 진술한 답변 앞  
에서도 더위만큼이나 장사가 없다.

바로 저자의 글 내용이 딱 그러하다.  
“음악을 좋아해서 전공하려고 했는데, 한번  
망신당하고 나니 하기 싫어졌다. 근데 마침  
수학이 좋아서 그걸 전공하기로 했다.” 수학  
의 노벨상이라는 필드상을 받았다면 꽤나 자  
신의 삶에 수식어도 붙일 만한데, 저자는 “즐  
겁게 공부하다보니, 수학자가 되었다”는 단  
순명쾌한 이야기를 시종 풀어낸다.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 행상 일을 한 이야기도 애상조  
가아니다. “나는 바보다”라는 내용도 서슴없  
이 나오고, “수학은 천재가 많기 때문에, 남  
들이 나보다 잘할 때 체념도 필요하다”라는  
나약한 모습이 이 곳 저 곳에서 보여진다. 그  
래서 좋다. 수학자의 책이라기보단, 공부 못  
하는 아이의 고백을 듣는 듯한 수줍음이 시종

일관 귀를 기울이게 한다. 어떻게 보면, 수학  
이란 단어에 국어나 영어를 넣어도 전혀 어색  
함이 없을 듯싶다.

재목이는 “제가 수학을 좋아하거든요”라는  
간단한 말로 책 감상평을 채운다. 재차 물으  
니 “읽을 만했어요”란다. 공부의 즐거움 옴팡  
빠진 아이의 이야기를 좀 적고 싶었는데, 믿  
었던 재목이가 이런 식이라니. “특별히 어느  
구절이?” 다시 물어도 “급하게 읽느라 기억  
나지 않아요.” 또 이런 식이다. 꼼꼼 이 글을  
쓰며 생각해 본다. 만약 재목이가, “제가 수  
학문제를 풀 때면, 답이 나왔을 때는 뇌하수  
체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맞는 듯해요”라는  
답변을 했다면, 얼마나 작위적일까. 혹은 “수  
학은 제 영원한 애인이예요. 제가 너무나 사  
랑하걸랑요” 식이라도 얼마나 거북했을까.  
《학문의 즐거움》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  
는 듯하다. 힘들 땀 힘들다고 하자. 지루할 땀  
지루하다고 하자. 바보 같을 땀, 바보 같다고  
하자. 그리고 받아들이자. 그리고 진술하게  
즐기자. 그것이 즐거움이다, 라고.